

7만 선교와  
선생님과의 연관성

작성일 : 2013. 09. 07(토) PM 11:00~  
작성자 : 정솔아

(뜨겁게 찬양을 한 후 선생님의 육신의 자유함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선생님의 육신의 자유함을 위해서  
7만 선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생각났고  
왜 선생님의 육신의 자유함을 위해선  
7만 선교를 해야 되는지 깊이 알고 싶어서  
선생님의 조건으로 성자께 여쭙보았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 성자의 말씀 \*

생명보다 더 큰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성문제나 죄를 회개할 때도  
생명을 드리는 이유 또한 이와 같다.

(사랑의 조건 또한 큰 조건인데  
왜 꼭 생명의 조건이어야만 하나요?)

왜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생명의 조건이냐고 물었느냐.  
남녀가 뜨겁게 사랑했을 때 아이가 생기듯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온 것이  
생명 전도라고도 할 수 있다.

생명 전도란  
나를 특정한 때만 특정 시간만  
순간만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를 진정 뜨겁게 사랑했을 때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  
생명이라는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무엇이나.  
생명 전도다.  
왜 생명 전도이겠느냐.  
영원한 사망 길로 가는 자를  
영원한 생명 길로 인도하여  
나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니  
어찌 그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위대한 일이다.  
선생이 너에게도 전도하는 자들이  
최고 큰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영원한 사망 길과  
영원한 천국 길의 차이가 그리도 크듯이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만큼  
크고도 큰일인 것이다.  
그러니 생명 전도를 하면  
그 의가 어마어마한 것이며  
너희 허다한 죄가 덮어질 뿐더러  
전도 속에 너의 소망과 소원 기도  
선생의 자유함까지도  
모두 들어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지금 그곳에 왜 있느냐?  
단순히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닌  
이 시대가 악함으로 받는  
시대의 십자가가 아니더냐.  
이 시대를 위해  
시대 의인이 질 수밖에 없는  
눈물의 십자가의 노정이 아니더냐.

한 개인의 죄 때문이라면  
1명 3명 7명의 생명 전도로 가능하겠지만  
이 시대의 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선생의 자유함을 위해서는  
7만 선교라는  
생명의 조건이 필요한 것이다.

11월까지 1인 1명 전도하라고 했지?  
11월까지 개인마다 전도 조건이  
진정 선생과도  
너의 휴거와도 연관이 있다 했다.  
선생은 충분히 조건을 세웠으니  
섭리사와 개인의 행함에 따라서  
각 개인과 민족 섭리의 영적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시대 사명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축복과 심판, 운명까지 좌우되었다.

나의 말은 곧 법이다.  
나의 말을 절대 지킴으로  
절대 축복과 화가 좌우됨이며  
생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이 말씀을  
생명시하며 조건을 지킨 자는  
어마마한 큰 대가를 받아 갈 것이며  
모르는 자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끝날 것이다.

항상 역사는 동참하는 자만 알고  
뛰는 자만 안다.  
뛰는 자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느끼게 되니  
이것이 하늘의 법이며 공의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진정 나의 계명 곧 말씀을 지킨다고 했다.  
나를 진정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며 수고할 것이니  
나는 너희의 그 몸부림이라는 작은 조건으로  
영 휴거라는 큰 대가를 줄 성자니라.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선생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섭리사 신부들이기에  
내가 주고 싶은 축복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지만 너희가 진정 행하는  
작은 책임분담이 있어야지만  
큰 대가의 축복을 줄 수 있으니  
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선생의 조건으로  
나 성자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두 다 가져가는  
섭리사 신부들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사랑의 성자가

(이후 성자께 섭리사 신부들에게

더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기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선생을 위한 기도를 더 하길 원한다.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선생이 그곳에서 너의 휴거를 위해  
그토록 애절하게 기도하듯이  
그리하여 선생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진정 나에게 닿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를 하길 원한다.  
많은 자들이 선생 기도를 한다 하지만  
실제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자 많고  
횃수로만 시간으로만  
채우는 자들 많구나.  
진정 선생에게  
힘이 되는 기도를 생각해 보았느냐?  
조건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 그 기도가  
선생에게까지 닿아 힘이 되려면  
진정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으로 기도하여야지.

진정한 사랑의 기도.  
선생에게까지 닿아 힘이 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까지 닿아  
선생의 자유함을  
이뤄 줄 수 있는 기도하자.  
사랑한다.